부자의병(父子義兵) 권희순·권수경

❝ 나라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내 가족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들풀처럼 일어난 군대가 의병(義兵)이다. ❞

정묘란 병자호란시 경상좌도(慶尚左道)의병도유사(義兵都有司) 권수경(權守經)은 고려 태사공 권행(權幸)의 24世이며 자(字)는 자정(子正)이고 호는 자락당(自樂堂)또는 사제당(思齊堂)이다.

부정공의 차자 별장공 균량(均亮)의 8대 종손 행정공(杏亭公) 식(軾)의 5대손이다. 별시 숭조(崇祖)의 현손이고 직장 사형(士衡)의 증손이며 호군 무성(武成)의 손자요 장기현감 권희순(長鬐縣監 權希舜)의 아들이다. 선조 17년, 1584년 갑신 12월 26일에 의성 점곡(點谷)의 사촌(沙村)에서 출생하였다.

공은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문인으로 일찍부터 학업이 두드러졌으나 전란이 거듭되는 난세를 만나 그 뜻을 펴 진취하지 못했다.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전후에 걸쳐 예제를 다하고 여묘(廬墓)를 하며 신석(晨夕)으로 통곡을 그치지 않으니 인근 사람들이 그 사는 곳을 일컬어 효려동(孝廬洞)이라 했다. 상복을 벗자 학행과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제릉참봉(齊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로부터 두문정거(杜門靜居)하면서 성리서적(性理書籍)을 탐구하였는데 그 당액(堂額)을 자락(自樂)이라 했다.

저술로는 스스로 몸가짐을 바로하고 반성하여 살피는 요체를 쓴 기여집(起余集) 5권과 감정의 방종을 억눌러 고쳐 나가는 방안을 논술한 담총집(談叢集) 4권을 남겼다.

인조 5년, 1627년 정묘에는 북란(北亂), 즉 호란(胡亂)이 일어나 만주(滿洲)의 노기(虜騎)가 쳐들어와 임금이 강화(江華)로 몽진하자 공은 44세로서 강개한 나머지 동지들을 규합 창의(倡義) 하였는데 이때 경상좌도(慶尚左道) 의병도유사(義兵都有司)로서 활약했다.

그 9년 뒤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또한 창의하여 정묘년과 같이 하였는데 병력을 이끌고 상경 길에 조령(鳥嶺)에 이르러 임금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내려와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돌아와서는 시주(詩酒)를 벗 삼으며 세상일을 잊고자 했다.

그 뒤 인조 20년, 1642년 임오년에 향당의 지주(地主) 엄정구(嚴鼎耉)라는 이가 학교를 크게 일으키고 공을 도훈장(都訓長)을 삼아 후학의 교육과 풍교(風教)의 진흥에 힘쓰게 했다. 효종 10년, 1659년 기해 정월 23일에 졸하니 수가 76세, 졸 후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경연(經筵)에서 임금께 주백(奏白)해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使) 로 추증되었고 다시 숙종 16년, 1690년 경오에 이조판서로 가증되었다.

그리고 다시 순조 조(純祖 朝)에 영남 유림의 진사 이경(李璥)등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공에게 시호(諡號)를 내릴 것을 청하니 예조에서 의론하여 시장(諡狀)까지 지어 봉상시(奉尚寺)로 넘겨졌으나 역명지전(易名之典)이 내리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공의 유사(遺事)는 증손자 두정(斗正)이 짓고 행장(行狀)은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教) 이가순(李家淳)이 지었으며 묘비문은 이조참판 이돈우(李敦禹)가 지었다. 시장(諡狀)은 예조판서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조성교(趙性教)가 지었다. 문집으로 〈자락당집(自樂堂集)〉 2권이 간행되었다.

배위는 증 정부인 진성이씨(眞城李氏) 참봉 형남(亨男)의 딸이고 묘소는 경북 의성군 점곡면 고운사(孤雲寺) 동쪽 산줄기인 부대동(富大洞)의 안산(案山)에 신좌로 있다.

아들은 수직(壽職) 가선대부(嘉善大夫) 전(琠). 구(玖), 통덕랑 선(璿), 성(珹) 봉사(奉事) 기(玘), 숙(王+肅) 이 있고 딸은 이한미(李漢美), 신석엽(辛碩燁)에게 출가했다.

다음은 자락당 선생의 시詩 몇 수를 소개한다.

춘일즉시春日卽詩(봄날의 즉흥시)

점득연하심자한(占得烟霞心自閒) 연하(煙霞)
어린 풍경에 마음 저절로 한가롭고

모자상대벽잔안(茅茨相對碧孱顔)
띠풀 지붕 위로는 높고 푸르른 산이 서로 마주하였네

서창수기무여사(西窓睡起無餘事)
서재의 창문으로 졸다가 일어앉아 달리 하릴없는데

춘조일성화만산(春鳥一聲花滿山)
봄 새 울음소리 한 소리에 산에는 꽃이 만발하였구나

여현선생내방희정일절(旅軒先生來訪喜呈一絶)

여헌(旅軒:장현광) 선생이 내방함에 기꺼이 한 절구를 지어 드림

만장요검제능하(晩將腰劍製菱荷)
늦게 찬 허리의 칼은 마름과 연꽃 무늬로 만들어지고

수요산명오류가(水麗山明五柳家)
물 맑고 산 빛 고운 곳에는 오류선생(晋의 도연명)의 집이있어

자락당 권수경 묘소

하탑유시성현덕(下榻有時星現德)
극진한 대접으로 유숙함에 별같은 덕이 드러나는데

탁맹무뢰세청하(托盲無賴世淸河)
무뢰한 청맹과니를 일러 세상 맑게 할 일 당부하네

차고제봉경명상리문견운(次高霽峰敬命謫裡聞鵑韻)

제봉 고경명이 적소에서 두견새 소리를 듣고 읊은 운자에 차운함

증사천궐원투황(曾辭天闕遠投荒)
한번 천궐(임금의 궁궐)을 하직하고 머나먼 황야로 떠나니

행색처량노묘망(行色凄凉路渺茫)
행색은 처량하고 아득한 길 망망하네

촉제원혼제원수(蜀帝寃魂啼苑樹)
촉나라 임금 원혼은 동산의 나무에서 울고

섬궁청백상산장(蟾宮淸魄上山墻)
섬궁(달 속에 있다는 궁전)의 맑은 혼백은 산등성이에 올라 있는데

잠휘연주행행루(潛揮戀主行行淚)
몰래 발휘하는 임금 생각에 걷는 발길마다 눈물이요

공단상시촌촌장(空斷傷時寸寸腸)
헛되이 상심함에 마디마디가 단장(斷傷)인데

위보□□수막원(爲報□□須莫怨)
은혜에 보답하려 했던 일이니 원망할 길 없는지라

인금동시재타향(人禽同是在他鄕)
사람과 새가 한가지로 타향에 와서 울고 있네

견단행사로감음일률(見壇杏巳老感吟一律)

이미 늙은 행단(杏壇)의 은행나무를 보고 느껴 한 율시를 읊조림

근도심천간접소(根到深泉幹接霄)
뿌리는 깊은 샘에 닿고 줄기는 하늘에 접하여

청음단합비소요(淸陰端合備逍遙)
시원한 그늘은 단아하게 소요할 곳을 마련하였는데

운종단각쌍용동(雲從但覺雙龍動)
구름이 좇아 일어나면 그저 쌍룡이 움직임을 알고

풍렬환의시월교(風洌還疑十月交)
바람이 차가우면 다시금 10월이 바뀌어 오는가 생각하네

금리남생인량미(錦里楠生人兩美)
고운 마을에 녹나무가 나니 사람과 더불어 아름답고

요대수로세천포(瑤臺樹老歲千抛)
요대(아름다운 누대의 뜻인데 신선의 집을 이르기도 함)에 나무가 늙으니 1천 아름까지 자라리로다

오선수식삼주의(吾先手植三株意)
우리 선조께서 손수 세 그루를 심은 뜻은

입팔유장재초고(卄八遺章載草藁)
28장 남긴 초고(草稿)에 실려 있나니

자락당 권수경 행장(行狀)

우리 행정(杏亭) 諱(휘)식(軾)이 태사(太師)의 유예로서 경혜공景惠公, 문종의 국구 전(專)의 폐부지친(肺腑之親) 으로서 마음으로 왕실에 충성해 공훈을 이룬 이름난 공경과 재상이 대를 빛내면서 거듭 이어 나왔거니와 행정공이 집 근처에 세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놓은 바 있어 이를 가리켜 세거(世居)하는 유지(遺址)로 삼게 했는데 선생의 5대조부가 된다.

고조부는 휘(諱)숭조로서 별제요 증조부 휘(諱)사형은 직장이며 조부 휘(諱)무성은 호군으로서 1백세를 향수 해 문강공 여헌 장선생(旅軒張先生, 張顯光)으로부터 지상의 신선이라는 추앙을 받았고 선고는 휘(諱)희순(希舜)으로 현감과 도총부도사를 지내고 호는 운암(雲庵)이며 어머니 숙인 나주 박씨의 충의위 항(恒)의 딸로 좌의정평도공 은(訔)의 후손인데 선생을 만력 갑신(1584)에 낳았다.

선생은 휘(諱)수경(守經)이고 자는 자정(子正)인데 타고난 자질이 명수(明粹)하고 기우(氣宇)가 준정(峻整)하니 아버지 도사공(都事公)이 기특히 여겨 사랑하였다. 임진란에 선생은 겨우 9세였는데 도사공이 의진에 나가 연거푸 세 곳의 성을 지키게 되어 침식의 여가조차 없게 되니 선생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하늘에 빌면서 오언의 율시 한 구절을 읊어 가로되.

"어찌해야 1만 가지 대적할 길을 배워 원수를 소탕하고 태평을 이룰 수 있는가.(하능학만적 소제치태평:何能學萬敵 掃除致太平)"하였다. 이 절구를 보고 장여헌(張旅軒)선생이 장허(奬許)하여 이르기를.

"지상의 신선(공의 조부를 가리킴)은 근심이 없겠구나. 후일의 나라의 그릇을 두었으니(지상선무우호 타일국기야: 地上仙無憂乎 他日國器也)"했다.

10세에 문예가 이미 성숙되었는데 15세가 되던 무술년(선조 31년, 1598)에 도사공의 상을 당하니 애훼(哀毁)함이 예제에서 벗어나자 향리의 사람들이 칭탄하여 마지않았다.

이미 관례를 올리고 나서는 한강 정선생(鄭逑)문하에 들어가 수업하니 문학과 사장(詞章)이 같은 무리에서 드러나더니 19세에 향시에 적중했으나 병진(광해군 8년, 1616)에 모부인 상을 당하고 정사(광해군 9년, 1617)에 호군공(조부)의 상을 당했다.

선생은 일찍 부친을 여읜 것을 상심해 늦게 까지 봉양치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품고 살아오다가 이때에 이르러 대상(大喪)을 거듭 만나니 더위잡으며 가슴을 찢는 애통으로 거의 성명(性命)을 잃을 지경이었으며 빈렴(殯殮)과 장제(葬祭)를 한결 같이 의례에 맞게 준행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바로 묘소 아래 여막(廬幕)을 짓고 시묘하면서 하루 세 차례 전(奠)을 올리는 것을 모두 반드시 손수 궤헌(饋獻)하면서 곡읍(哭泣)으로 슬퍼하며 몸이 메마르니 조상하는 자가 모두 이를 보고 열복(悅服)하였다. 그리하여 3년 이내에 비록 혹한이나 무더위와 장마가 와도 이렇게 하기를 폐하지 아니하니 이때의 사람들이 그 곳을 이르기를 효려동(孝廬洞)이라 했다.

37세가 되던 경신년(광해군 12년, 1620)에 제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공 의준(李公 義遵)이 과거를 볼 것을 권하자 선생은 울며 이르기를.

"내가 비록 한번 과거에 급제하여 크게 발천(發闡)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버이 모두 아니 계시니 기뻐 할 일이 없어졌소"했다.

이로부터 과거를 위한 학업을 일체 폐하고 단지 사자(四子,四子書) 즉 사서(四書)로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와 육경(육경 : 주역, 서경, 시경 주례, 예기, 춘추의 여섯 가지 경전)을 잡고 매달리는 것을 사업의 본분으로 삼았다.

영귀서당(詠歸書堂)을 중창해 이로써 후진의 나갈 길을 지도하고 자락당(自樂堂)을 지어 이로써 한거(閒居)하면서 또한 힘써 강학하는 곳으로 삼으니 이것이 되돌려져 그 아호가 됐다.

기여집(起余集) 5권을 저술하니 위로 절반은 모두가 옛 성현들의 절요지지(切要之旨)이고 아래로 절반은 모두가 백성을 다스리고 군을 다스리며 세상을 구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바를 기술한 것이었다.

또한 담총집(談叢集) 4권을 저술했으니 2권은 모두 조심하여 몸가짐을 하고 살피고 반성하는 뜻의 말씀과 징질(懲窒 욕망을 징계하고 막아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해 개과천선(改過遷善)하는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2권은 곧 당시 제현들과 왕복하며 변정(辯訂)한 글에다 외물(外物)을 완상할 때에 발흥되는 감상을 덧붙여서 후래의 제현들에게 절실할 말씀을 기술한 것이다.

선생은 일찍이 천운대(天雲臺)에서 가을의 물이 맑게 정지된 것을 보고 여러 아들에게 경계하고 깨우치기를, "사람의 마음이 외물에 의하여 더렵혀지지 않는다면 밝게 비워지고 맑게 호탕해져서 그 본원(本源)이 발로되는 것이다. 또한 학기(學記)와 유행(儒行) 등의 책편(冊篇)을 매일의 공부할 과목으로 삼으면서 이르기를, 이것을 제외하고는 일생을 그릇되게 살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송계(松溪) 이공 형남(李公 亨男)과 나재(懶齋) 신공 열도(申公悅道)가 공의 字를 자정(子正)으로 지어주고 이르기를, 표표(飄飄)히 진토(塵土)에서 벗어난 표상이 있으니 진실로 진성(眞城:퇴계 이황을 이름)문하의 후학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제사와 재계의 절목에는 더욱 삼가서 재계할 때에는 3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밤이 다하도록 호곡하며 애통하였으며 제사를 마친 뒤에도 술

기천정사

과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군자라면 어찌 종신토록 상을 당한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랴"했다.

매양 나라의 기일(忌日)을 당하면 또한 술과 고기를 들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금일2월 1일은 선묘(宣廟:선조)의 휘신(諱辰:기일)이니 신하로서 감히 이를 잊을 수 있느냐. 우리 집은 대대로 임금의 은혜를 많이 입은데다가 내가 또한 외람되이 은총을 입어 벼슬을 제수 받았으니 감히 늙고 병들었다고 해 허물 되이 이를 등질 수가 있겠느냐"했다.

천계(天啓) 명 희종 연호 정묘(인조 5년, 1627)에 오랑캐의 기병(騎兵)이 졸지에 핍박해 들어와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되자 선생이 의려(義旅)를 수창(首倡)해 일으켜 한번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는 본보기를 삼으려 하니 향인(鄕人)들이 추대해 대장(大將)으로서 경상좌도의 호소사(號召使)가 되었는데 여헌 장선생이 다시 차임(差任)해 경상좌도(慶尚左道)의 의병도유사(義兵都有司)를 삼았다.

도적이 물러간 뒤에 우복(愚伏) 정선생(鄭經世)이 경상우도 호소사로서 그 충근(忠勤)함을 아름답게 여겨 조정에 징계하여 올리기를, "의성(義城)의 의병장 권수경은 병사를 소모(召募:불러 모음)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였으며 그 사람됨은 가히 백자리 일을 맡아 볼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했다.

그 9년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또한 의병을 일으켜 모획(謀畫)하고 조속(條束) 하는 것이 정묘년과 똑같이 하였다.

선생이 몰한 해 7월에 우암(尤菴) 송문정공(宋文正公 송시열 宋時烈)이 전일의 장첩(章牒)을 고열(考閱)하여 보고는 특별히 임금께 품계해 가선대부 돈녕부사 이조판서로 추증되게 했다.

선생은 숭정 기해년(효종 10년, 1659)에 졸하니 향년이 76세였으며 고운산(孤雲山)의 동쪽 산줄기 신좌 언덕에 안장되었다. 배위는 정부인 진성 이씨 참봉 호 송계(松溪) 휘 형남(亨男)의 딸이고 묘소는 합폄되었으며 5남 2녀를 생육하니 장남은 전(琠)으로 수직 가선대부 돈녕부사를 받고 차남은 구(玖)이며, 그 다음은 통덕랑 선(璿)으로서 문장과 효행이 있었으며 다음은 성(珹)이고 그 다음은 봉사 기(玘)이다.

딸은 장녀가 연안 이한미(李漢美)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영월 신석엽(辛碩燁)에게 출가했으며 손자와 증손 이하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선생은 초고(草稿)를 이미 완성해 놓았으나 중도에 화재를 겪는 동안 유적이 많이 산실(散失)되었고 오직 오봉(五峰) 호민(好閔 좌찬성 이 호민이 선생과 더불어 시의(詩意)가 통하여 시로 운자를 먼저 내 지으면서 발명(發明)하고 임천(林泉)과 전야에 은거하는 낙을 즐기며 서책과 문장 사이에서 유연히 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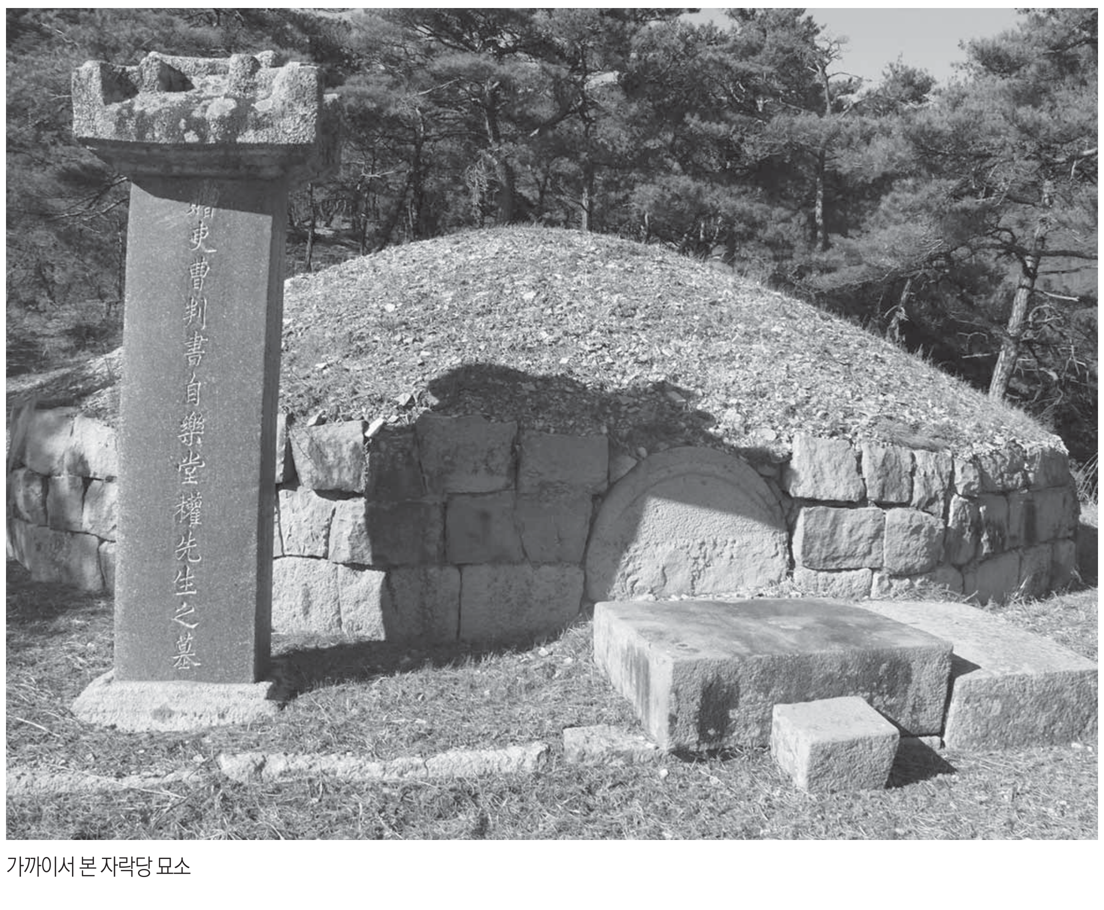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공(李公 : 장인 이 형남)이 일으켜 세상에 진취할 것을 권함에 이르러 이를 기꺼이 들으면서 이르기를, "재주가 거칠고 배움이 얕아서 능히 요순도 임금으로 섬기지 못한다. 고 것에서 가히 선생이 분수 밖의 것을 부러워함이 없이 평소에 기른 지조를 굳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다.

위로 우러러서는 요순의 치화(治化)를 즐겨 바라보고 아래로 굽어서는 임천의 정취를 즐기면서 이로써 더욱 자락(自樂)의 극치를 이루니 예로부터 일을 즐기고 그 처하기를 즐겁게 마친 이를 찾아보건대 선생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 비록 허다한 문자로써 찬양하는 말을 엮을수 있다. 한들 여기에 무엇으로써 더 할수 있으랴. 선생의 증손 두정씨(斗正氏)가 일찍이 유사를 지었고 5세손 현인보(顯仁甫)는 나와 동년(同年)인데 그 실록에 또 자세한 것을 가하였으나 오히려 외람스러워하고 겸사해 감히 스스로 지은이가 되고자 아니하니 그 어찌 완전하게 갖추어 정리하는 것으로만 그치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지금 대우보(大宇甫)가 행장을 청해 와서 이미 누차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여 감히 스스로 항안(抗顔 교만하고 외람된 태도)을 무릅쓰고 혈지(血指)로써 송언(訟言 여러사람 앞에서 공개로 언명함)하거니와 나는 지금 얼마나 이로써 주벌(誅罰)을 받아야 할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숭정 기원후 네 번째 계묘년(헌종 9년, 1843)2월 하순 통훈대부 전행(前行)홍문관응교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 편수관 진성(眞城) 이 가순(李家淳) 삼가 씀.


가까이서 본 자락당 묘소

글 김정중
/의성문화원 향토연구위원, 의성향토사연구회 회장